

보도 일시	2022. 2. 10.(목) 14:00		
담당 부서	지방분권자치실 주민과	책임자	과 장 이지성 (044-205-3141)
		담당자	사무관 윤은옥 (044-205-3155)

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. 4월 시범실시 예정

- 행안부와 통신3사 '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' 체결 -
-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수요처 발굴을 통한 이용 활성화 협력 -

-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는 2월 10일(목) 서울시 중구 에스케이티(SK)타워에서 에스케이(SK)텔레콤(대표이사 유영상), 케이티(대표이사 구현모), 엘지(LG)유플러스(대표이사 황현식)와 함께 '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'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- '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'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(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발행일, 주민등록기관)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.
 - '정부24'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, 신분확인번호(정보무늬: QR코드)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정보무늬(QR코드)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.
 - 행정안전부는 「주민등록법」 일부개정('22.1.11. 공포)을 통해 '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'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,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
-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,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*하고, 활용기관(공공·민간)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.

*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, 본인명의로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

- 현재, 통신3사는 패스(PASS)앱을 통하여 ‘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’를 제공하고 있다.
- 행안부는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요령(노하우)를 공유하여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.
- 이후,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패스(PASS)앱을 통해 확대 실시함으로써,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.



- 또한,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, 다양한 수요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관 확대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-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, ②편의점,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(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), ③공항,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,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다만,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될 수 있음

□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, 공항, 여객터미널,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,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□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,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,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, 하반기에는 패스(PASS)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.

□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,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”라며,

○ “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,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